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12월 10일(주일) 제1175호



사진은 지난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일(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0분, 각 캠퍼스 본당,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내일(11일)부터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가 시작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2018년 온누리교회 표어이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1월 20일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오전 5시 20분에 진행된다. 해외비전교회와 전 세계 선교지에서는

CGNTV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동참한다. CGNTV는 새벽기도회 실황을 생중계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주별 주제에 따라 말씀을 선포한다. 첫째 주(12월 11~16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둘째 주(12월 18~23일)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주(12월 25~30일) '그리스도 안에서', 넷째 주(1

월 1~6일) '그리스도 아래서', 다섯째 주(1월 8~13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섯째 주(1월 15~20일) '그리스도처럼'이 주별 주제이다.

요일별 중보기도도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 화요일 차세대, 수요일 선교, 목요일 교회, 금요일 가정, 토요일 통일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특순도 풍성하다. 주사랑, 주향한, 주의빛, 주임재, 주경배, 위십과이어, 포에버성가대, 권사 성가대, 장로합창단, 온사랑합창단, 남성합창단, 뮤지컬찬양팀 등 온누리교회 찬양팀이 섬길 예

정이다.

이런 새벽 교회에 오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공동체별로 카풀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 주일(12월 3일) 예배에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배우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영적 수련회가 될 것"이라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CGNTV, 한국기독교언론대상
선교, 나눔기부 부문 수상

CGNTV 개국1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사랑하기 때문에'가 지난 7일 SBS 목동 사옥에서 진행된 '제9회 한국기독교언론대상 시상식'에서 '선교' 부문 최우수상, CGNTV KNOCK 미니휴먼다큐 '현목이의 미니멀 라이프'가 '나눔기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꽃조롱 기자의 <숫자로 보는 선교> 시리즈는 지난 1일 노랑진 CTS에서 한국기독교전기자협회가 수여하는 '방송 보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CGNTV 동북아지역 위성변경으로 인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러시아에서 2018년 1월 31일까지 A/S를 실시한다. 2월 1일부터는 A/S를 받지 않은 시청자들은 CGNTV를 시청할 수 없다. A/S는 사전 연락후 방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문의: 국내(02-796-1118), 해외(02-796-2588)

온사랑합창단,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은상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 16팀이 참가

온사랑합창단이 지난 12월 1일 열린 제25회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된 이번 합창대회에서 온사랑합창단은 '이 세상은'과 '희망의 멜로디'를 불러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온사랑합창단이 은상을 수상한 제25회 전국장애인합창대회는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이사장 최궁열) 주최로 개최됐다. 서울 라파엘코러스, 온사랑합창단, 부산 아름다운합창단, 광주 한울림합창단, 강원 영월동강합창단, 제주 이음합창단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 16팀이 참가했다.

온사랑합창단은 올해 7월 3일 제5회 전국발

달장애인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이번 합창대회는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합창단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예술문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온사랑합창단은 온누리교회와 온누리복지재단 소속 발달장애인 합창단이다. 2011년부터 학교, 병원, 교회, 교도소 등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MBC 바보나눔 스페셜 콘서트, 전국 지적장애인 합창대회 등에 참가해서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 이소정 기자

갈렘공동체, 구의장상 수상

대학청년부 갈렘공동체가 지난 7일 창신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후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서 구의장상을 받았다. 창신1동 쪽방촌을 섬기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갈렘공동체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종로구 동대문 쪽방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쪽방촌 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창신1동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가 생일파티, 한가위בל레싱, 사랑애플 나눔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종로구 동대문 쪽방상담센터 이경희 소장은 "갈렘공동체 청년들이 이웃들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후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종로구 동대문 쪽방상담센터 주최로 개최되었다. 우수 후원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교류 및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다.

기획_이웃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4-5면 르포_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가다 7면 기고_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8면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노숙인들과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천사’로 통하는 청년이 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라고 인사하고 다가와서 노숙인들에게는 먹을 것을,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는 야광조끼를 선물하고 있는 윤현묵 형제(27세)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7월 윤현묵 형제의 미담이 CGNTV KNOCK ‘현묵이의 미니멀라이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자 큰 파장이 일었다. 영상 조회 수가 무려 약 3백만 회(페이스북 307만회, 유튜브 32,205회)를 훌쩍 넘어섰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확연히 가슴을 사로잡네요”, “나도 교회에 가고 싶어요” 등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다.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천사 윤현묵 형제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천사로 통하는 ‘청년 윤현묵’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함께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윤현묵 형제.

윤현묵 형제는 늘 가방 속에 야광조끼와 구급함, 장갑을 가지고 다닌다. 계절에 따라 챙겨 다니는 물품이 바뀌기도 한다. 비가 오면 우비를, 겨울에는 핫팩 같은 방한용품을 챙긴다. 그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의 하루 일과는 남들과 조금 다르다. 대학생인 그는 학교에 가기 전과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 골목을 다니면서 파지 줍는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을 만난다. 그런데 그는 왜 파지 줍는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까. 보통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는 걸까?

“길에서 파지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거든요.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말로 다 못할 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윤현묵 형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가야했을 정도로 가난했다. 아버지는 파산해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단 한 명뿐인 형은 오토바이 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때가 윤현묵 형제가 13살이었다. 갑작스런 형의 죽음이 바로와 닿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이 커져 갔다.

“군대를 제대하고 생계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그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었다. 가전제품 설치회사, 엘리베이터 수리 등 돈을 벌기 위해서 닦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를 몹시 괴롭혔다. 괴로울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또 믿었다.

“저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대부업체에 들어갔어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았었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한번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와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록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상황으로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이 뻔했다. 어린 아이에게 빚이 넘어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당시 대부업체 금리가 매달 37.9%나 됐다. 그 서류만 넘기면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돈만 쫓던 그였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금리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날 이후 대부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회의감

이 몰려왔다.

“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함께 있어주는 단 한 사람

오로지 돈만 쫓던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대부업체 일을 모두 정리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믿음이 뜨겁게 불타오른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준 목사님에 대한 의리로 교회에 나갔어요. 주일날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교회에 간 적도 있고요.”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015년 겨울수련회 때다. 둘째 날 집회에서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듣는데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다. 과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그 순간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포근함이 느껴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현묵아, 이제 나에게 와주지 않을까?”

그날부터 삶이 달라졌다. 대부업체 일은 완전히 정리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때 진짜 하고 싶은 일도 찾았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는 것이다. 그가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죽은 형을 붙잡아 준 단 한 명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방황하

는 청소년들에게 그 단 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서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게 되었어요.”

그는 틈틈이 청소년센터를 방문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들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사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 노숙인 삼촌들의 모습이 도저히 잊히지가 않더라고요. 요새는 날이 추워져서 따뜻한 울무치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울무차, 야광조끼, 음료수 등을 가득 넣은 그의 가방이 더 무거워졌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르신들과 노숙인들과 같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난해 한국성서신학대학교 성서학과에 편입해서 신학공부를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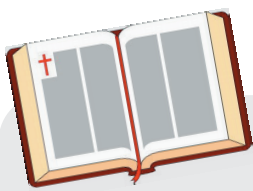
요즘 윤현묵 형제는 몇몇 어르신들께 성경책을 읽어드리고 있다. 그가 만나는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다.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르신들과 노숙인 삼촌들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윤현묵 형제의 말과 행동에는 진실과 사랑이 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긍휼함도 묻어있다. 그는 힘들어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함께 있어준 어르신 중에도 변화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함께 있어준 사람은 노숙인이었다. 알코올중독자이기도 했다. 그가 처음 그 노숙인을 찾아갔을 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두 번, 세 번 찾아갔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눈을 마주치고, 짧게라도 대화를 했다. 4개월 뒤에는 그 노숙인 스스로 교회에 나올 정도로 회복됐다. 윤현묵 형제는 그 노숙인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이 말만 했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사무엘하 7:5~16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영원한 왕입니다.”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오실 때는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국빈이 오면 국빈으로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준비 하셨습니다. 그 준비는 화려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시는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조상들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후손들이 조상을 기념하고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기념하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된 사람들의 삶은 장차 그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한 측면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사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심으로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 대립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예언을 통해 왔습니까. 수천 년 역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200여 개가 넘는 예언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주어졌고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많은 조상들을 대표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든 이유는 그들의 삶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선택된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념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라”(시 2:6).

다윗이 왕이 되고,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은 다윗에게 있는 선천적 자질, 위대한 능

력, 엄청난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 선택되었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고,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삶 속에 다른 사람보다 좋은 면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못한 면도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살인을 교사하는 죄를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순과 잘못이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높여 주셨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기념되는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나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네 앞에서 네 모든 원수들을 끌어 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들이 뿌리박을 터전을 주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며 내가 사자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네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 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8~11절).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평화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은 왕궁에 거하는 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구적인 건물,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자신의 계획을 말하니까 나단도 기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지만 다윗의 계획에 대해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이야말로 가장 놀랍고, 극적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왕조’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집’과 ‘왕조’를 혼용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무서운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신앙적인 말인 것 같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마음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말 속에는 엄청난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위대한 그 무엇인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도우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받는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영광만이 하나님께 드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헌신을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법궤를 보관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

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집, 다윗의 자손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높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의 대적들을 다 끌어주시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주심으로 다윗만 위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대적들,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끌어오시고, 무너뜨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진정한 왕이십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밟으시고, 그 누구도 통치를 거부할 수 없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원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성육신의 신비이자 축복

“네 날들이 끝나고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자손을 일으켜 네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12~14절).

“네(다윗) 몸에서 나올 네 자손을 일으켜 네 뒤를 잇게 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솔로몬이나 혹은 다른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 줄 것이다”라는 말씀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솔로몬의 왕국과 성전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또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다윗의 후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3.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 따르는 크리스천에게 이웃 사랑은 당연한 책무
사랑애틀눔, 엔젤트리 등 사랑 나눔에 적극 참여하자!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잠 27:10).

“천금으로 밭을 사고 만금으로 이웃을 산다.”

성경과 우리 조상들은 피를 나눈 형제자매만큼이나 이웃을 중히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웃 사랑 정신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다.

1964년 3월 어느 날 밤, 키티 제노비스(당시 28세)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괴한에 습격당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제노비스가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주변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무려 38명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괴한은 창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도망쳤다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도 나와 보지 않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와 숨이 붙어 있던 제노비스의 목과 가슴을 재차 찌르고 도망을 쳤다. 나중에 경찰이 38명의 목격자들을 심문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일이 있은 후 미국의 몇 개 주는 위기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벌금이 무서워 남을 돕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웃 사랑 정신이 퇴색된 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고독사하는 사람이 1,717명이나 된다. 하루에 평균 5명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다. 고독사 의심까지 더하면 수치는 11,002건에 달한다. 이웃 사랑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

성경은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신 15:7-8).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 하려니와 못 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잠 28:27).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0-11).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



대학청년부 길공동체의 사랑애틀눔, 사회선교부가 주관하는 엔젤트리, CMN마노아팀 의료봉사(왼쪽부터 시계방향).



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막 12:33).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딤후 6:18-19).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27).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요일 4:21).

이밖에도 성경에는 약한 자, 가난한 자, 몸이 아픈 자, 이방인,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가득하다.

성경에 나오는 이웃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일화는 ‘선한 사마리아인’(눅 10:25-37) 비유이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고 물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재물 많은 청년의 질문과 똑같다. 영생의 방법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16-30)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근심과 슬픔에 잠겨 돌아갔다. 많은 재물이 청년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다.

예수님은 재물 많은 청년에게 알려준 것에서

더 나아가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 “이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고 설교하셨다.

율법학자는 율법에 기록된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냐고 역으로 질문하자 주저 없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다는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율법학자는 진정한 의에 이르는 못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37).

돕지 못할 만큼 가난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나 먹고 살기도 팍팍해서 등의 이유로 이웃돕기를 주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돕지 못할 만큼 가난하지 않다.

구호 단체 월드비전의 캐나다 회장 데이브 토이센이 내전으로 폐허가 된 코소보 지역에서 구호 활동할 때 일이다. 하루는 난민들의 수용소로 쓰이는 체육관에서 한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군인들에게 폭행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소년은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어느 자원봉사자가 준 초콜릿이었다. 토이센 회장이 무심코 그 초콜릿을 쳐다보자 그 소년은 선뜻 포장을 뜯더니 한 조각을 떼어 내밀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가진 것이라곤 초콜릿 하나가 전부인 소년의 행동에 큰 감

동을 받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 것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아무 것도 받지 않을 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추우면 이웃도 추울 줄 알고, 내가 배고프면 이웃도 배고플 것을 알아야 한다. 이웃을 나처럼 여겨야 한다. 기도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마음과 물질과 기도로 섬기고 나누어야 한다. 예수님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셨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 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롬 15:1-3).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이웃이다.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크리스천에게 이웃 사랑은 당연한 책무이다. 오늘(12월 10일) 봉헌하는 비전헌금은 대학청년부 ‘사랑애틀눔’을 위해 지원된다. 불우이웃 810가구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포항지역 교회, 한동대학교의 고통을 나누는데 사용된다. 또한 ‘엔젤트리’를 통해 2,137개의 사연이 접수됐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선물이 전해질 예정이다. 땀과 눈물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고 있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문의: 사회선교부 02-3215-3434, 3436

대정 사랑애틀눔

사회적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

온누리교회는 성육신적, 사회참여적, 선교적 교회

온누리교회는 성육신적 교회, 사회참여적 교회, 선교적 교회다. 사회적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다는 의미다. 그 대표적인 사역이 대학청년부 사랑애틀, 엔젤트리, 1다락방 1사역, 온누리복지재단, NGO 더멋진세상 등이다. 사회선교본부장 이기훈 목사가 왜 교회가 세상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 본부장)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상호관계 속에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신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것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즉, 사람은 하나님과는 물론 타인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타인과의 교제 안에 머문다는 것을 뜻한다. 그 교제 속에는 행복, 희망, 고통, 책임 등을 함께 나눔이 담겨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관계 속에 있어야만 참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우선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우리'라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흘러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예루살렘 교회의 건강한 영성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건강해야만 한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리더들 사이에 너와 나라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하다. 가끔 만남의 잔치에 참석한 새신자들에게 온누리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다툼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잠언과도 같은 소리이다.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녀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던 마게도냐 사람처럼 방황하는 영혼들도 많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이 있는

가 하면,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부모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부모들이 자녀의 집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농담이 단순히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닌 듯 해서 마음이 씁쓸하다.

요즘 독거노인이라는 용어가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 이웃 없이 살고 있는 어른들이 많아졌다는 증거이다. 또한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사회를 등지고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산속에서 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어느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걸 보면 이 또한 오늘날 관계단절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편 가

기업은 금년에 사회봉사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이웃 되어주기 사업을 시작했다. 교회보다 앞서 가는 기업들로부터 교회는 도전을 받는다. 만약 교회가 사회적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도태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이웃으로 삼으셨고, 동시에 타인의 이웃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찾아 오셨듯 교회도 이웃이 될 사람을 찾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길 주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사회 지도층이나 귀족계급이 아니라 세리,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과부, 나사로, 한센병 환자, 눈먼 사람들, 귀신들린 사람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삶이 곧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만약 교회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얻은 구원과 받은 복에만 취하여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산다면 이 또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 기득권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물론 가까이 가야 할 이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관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세상속으로 들어가야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성육신적 교회', '사회참여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청년들이 서울 시내 곳곳의 카페에서 새벽기도모임을 갖는 것과 술과 춤으로 가득한 클럽을 빌려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세운 것이다.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기존의 개념을 깨뜨리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곳을 교회가 되게 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육신적 교회의 모습이다.

또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찾아가 관계 맺고, 사랑 가운데 목회자들을 응원하거나 재능 기부자들이 교회를 직접 수리보수 해주는 일, 수감자들이 갇힌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일, 동빙고와 보광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매달 찾아가 벗이 되어주는 사역,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탈북민들을 찾아가 교제하면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찾아가 그들과 이웃이 되어주는 사역 등은 모두 성육신적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성육신적 교회의 하이라이트는 '1다락방 1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가 속해있는

“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찾아 오셨듯 교회도 이웃을 찾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르기라는 벽이 세워지고 있고, 갑과 을, 부자와 가난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주와 노동자, 주택자와 무주택자 등 점점 이분법적 단절의 골이 깊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회계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은 구제봉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일이 참으로 많아졌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고독한 인간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행복, 희망, 고통,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아예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다. 하나님이 나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을 위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대사회봉사의 내용이 건강한 기업의 평가 기준이 된지도 이미 오래다. 세계적인 한국의 모

“이 은혜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일산 마태다락방과 파주 디자인교회의 아름다운 연합

“한국에 살면서 이런 귀한 대접은 처음입니다.”

일산공동체 마태다락방이 파주 디자인교회와 아름다운 협력을 하고 있다. 일산공동체가 매월 1회씩 파주 디자인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선교센터를 방문해서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지난 주일(3일) 파주 디자인교회 선교센터를 방문해서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만나고 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일산공동체 마태다락방의 1다락방 1사역지는 파주 디자인교회 선교센터다. 이곳은 카메룬, 나이지리아, 가나 등지에서 온 이주민 20여 명이 예배드리는 장소다. 파주 디자인교회 선교센터는 경기도 파주시 연풍리에 있다. ‘용주골’이라는 국내 최대 집창촌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파주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보살피고 돌봐야 할 이웃들이 많은 지역이다. 파주 디자인교회 선교센터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평일에는 ‘조이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돌봄방으로 이용되고, 목요일과 주일에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일산공동체 마태다락방과 파주 디자인교회의 만남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됐다. 1다락방 1사역지를 알아본 일산공동체 리더십들이 파주 디자인교회를 방문해서 도움 일이 없는지를 물었다. 장일석 목사(파주 디자인교회)는 일산공동체 마태다락방 성도들의 방문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선교센터에서 주중예배만 드리다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고심하고 있었거든요.



일산공동체 마태다락방 성도들이 비비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마침 그때 봉사를 하겠다며 찾아온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지만...”

일산공동체 마태다락방은 지난 7월부터 매월 셋째 주에 아프리카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하기 시작했다.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파주 디자인교회 선교센터에서 아이들 돌봄방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과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삶이 참으로 팍팍했다.

비비 형제(나이지리아)는 혼자서 아들 미라클(3살)을 키우고 있다. 아이 엄마는 한국인인데 아이를 낳자마자 연락이 끊겼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시설에 맡겨야 하는데 퇴근하는 시간까지 맡기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다. 조이 하우스를 알기 전에는 월급 150만원을 받았는데 어린이집 20만원, 퇴근시

간까지 아이를 봐주는 보모 40만원, 월세 45만원, 병원비, 기저귀, 분유 값을 빼면 장난감은 고사하고 생필품 살 돈조차 모자랐다.

“죽을 만큼 힘들지만 웃음 짓는 아이를 보면 괜찮아져요”

비비 형제의 형편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올해 1, 2, 3월에 출산을 앞둔 3명의 임신부 클라리스(카메룬), 오벤(카메룬), 에밀리아(가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임신 6개월째인 오벤이 걱정이 가장 많다. 남편도 없고 생활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월급이 80만원 남짓이다. 월세 20만원을 내고,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데 임신부라고 된 일을 할 수도 없다. 10만원씩 내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도 겁이 난다.

“회사에서 제가 임신한 것을 몰라요. 알게 되면 일을 그만뒀야 할 거예요.”

한때는 나쁜 생각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잘 낳아서 키워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생면부자인 일산공동체 마태다락방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거짓말처럼 모인 도움의 손길들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일산공동체 마태다락방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돕고 있지만 그들의 필요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사연을 공유하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거짓말처럼 도움의 손길이 모이기 시작했다. 생필품을 후원하겠다는 성도, 임신부 진료를 해주겠다는 병원도 있었다. 기저귀 106박스를 지원한 성도도 있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임신부들의 출산지원금은 사회선교본부에서 쾌척했다. 훈훈하게 이어지고 있는 후원의 손길 덕분에 일산공동체 마태다락방, 파주 디자인교회, 아프리카 이주민 모두가 웃음을 되찾았다.

지난 11월에는 디자인교회 사모와 마태다락방 성도가 임신부들의 손을 잡고 일산 동원산부인과를 방문했다. 태아와 산모를 모두 건강했다. 오벤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저희 고향에서도 엄마가 임신한 딸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곤해요. 임신하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는데 엄마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클라리스는 이주민들을 대표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 은혜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일산공동체 마태다락방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장일석 목사
(파주 디자인교회)

저는 파주 디자인교회 장일석 목사입니다. 매달 3째 주 주일에 일산공동체 마태다락방 성도님들이 경기도 파주 연풍리에 있는 저희 선교센터를 방문해 주십니다.

주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아프리카 외국인 노동자들의 예배를 섬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찬양과 저녁 식사, 마음을 다하는 섬김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겨주십니다.

지난 1~2년 사이 파주 법원리, 광탄, 연풍리 등지에 적지 않은 아프리카 이주민 노동자들이 정착했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 나이지리

아, 가나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인데 대부분 난민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난민비자로 들어와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의 법원에 난민신청 소송을 합니다.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은 한국에 공식적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패소합니다. 거기다가 난민비자로 오신 분들은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조차 받지 못합니다. 아프리카 노동자들은 다른 아시아 노동자들과 많이 다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비스 업종에는 거의 종사하지 못합니다. 여자들까지 대부분 공장이나 폐기물 처리 같은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자녀문제입니다. 부부가 함께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자녀를 낳으면 대책

이 없어집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아원에서 온 아프리카 이주민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어린이집을 찾기도 힘들지만 있어도 돈이 없어서 맡기지 못합니다.

저희 선교센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조이’라는 아이의 부모가 이태원까지 자녀를 맡기러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작은 도움을 주고자 승용차로 이태원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소대로 찾아 간 곳은 어린이집이 아니었습니다. 산동네 허름한 방에 5~6명의 아이들을 아프리카 원주민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위생과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놀랐고, 부모들이 40만원을 내고 일주일 내내 그곳에 아이들을 맡기고 주말에 찾아 간다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리카 이주민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이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교사 2명이 아이들 9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온누리교회 성도 한 분이 기저귀 106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임신부 자매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일산공동체의 마태다락방 임형규 집사님과 권사님, 일산공동체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온누리교회 일산공동체의 섬김과 헌신이 아프리카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르포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가다

“포항 시민들과 함께 울어주세요”

심리상담, 피해복구, 중보기도 필요

포항에는 아직도 지진 불안과 공포가 남아있었다. 무너진 건물, 균열이 간 도로,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출입이 통제된 건물 앞에는 경찰들이 2인 1조로 보초를 서고 있었다. 아직도 포항 시민들은 지진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진피해 복구, 지진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절실히 보였다.

/ 이소정, 김영선 기자



외벽이 붕괴된 한동대 느헤미야홀, 더 이상 붕괴되지 않게 구조물을 설치했다.

경상북도 포항에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달 15일이다.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지진 발생한 지 429일 만이다. 이번 포항 지진(5.4)은 경주 지진(5.8)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피해규모는 훨씬 컸다. 우리나라 역사상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더 놀라고 충격이 컸다. 지금까지도 여진이 68회 이상 이어지고 있어 지진 불안과 공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포항 시내에서 만난 시민 김응동(60)씨는 “평생 살아온 포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지진 진앙지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동대학교도 큰 피해가 예상됐지만 인명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평소 지진이나 화재를 대비한 훈련과 공동체성 덕분이었다. 한동대학교는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지진대피훈련을 더욱 강화했고, 20년 전부터 학생 40여 명과 교수 1인이 팀을 꾸려서 재난발생시 즉각적으로 인원과

악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훈련과 공동체성이 이번 지진에서 빛을 발했다. 학생 3명이 연락이 두절된 것을 즉각 파악했고 15분 이내에 그 학생들을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동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평소 훈련하던 대로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총학생회와 자치회 안전 요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운동장으로 대피했다. 학생 4천 명이 단 20분 만에 대피를 완료했다. 그 덕분에 건물 피해규모는 심각했지만 인명 피해는 경상자 2명에 불과했다.

포항 지진의 진앙지는 포항 북구 흥해읍 망천리 앞뜰 부분이다. 한동대학교에서 불과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진앙지 반경 10km 이내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한동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인명 피해가 경미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평상시 재난을 대비한 훈련과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증상에 맞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긴장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호흡법을 가르쳐 주면서 안정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멍하고 침체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는 감각을 온전히 느끼도록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손을 꼭 쥐었다 피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지진 피해 입은 교회들 ... 복구지원 미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12월 7일 기준)까지 포항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92명이다. 84명은 귀가했지만 8명은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재민은 1,797명이 발생했는데 819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와 향만, 문화재 등 공공 시설 644개소가 피해를 봤고, 주택과 상가, 공장 등 사유 시설도 3만 1천 개소가 지진피해를 겪었다.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환여동 대동빌라는 붕괴될 위험 때문에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다. 흥안교회는 담이 무너져서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종교시설에 대한 복구지원이 거의 없어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다. 교회 자체 현금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비용을 마련하기에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높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에 위치한 흥안교회(김두전 목사 담임)는 30년이 넘는 벽돌 건물이다.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물들이 반파되었고, 건물 외벽도 금이 심하게 가 있는 상태다.

진앙지와 가까웠던 포항 곡강교회도 벽에 균열이 발생해 어른 손가락 두 개 정도 들어갈 틈이 생겼고, 사택 역시 균열과 뒤틀림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포항 기쁨의교회도 벽에 균열이 가는 등 지진 피해를 입었다. 그 외에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가까이 교회를 개방했다. 그 덕분에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이재민 150여 명이 포항 기쁨의교회에 머무를 수 있었다.

마음을 모아 위로와 격려를

한동대학교 학생들과 포항 시민들에게는 우

선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지진 발생 이후 불안과 공포 호소, 지나친 각성상태나 멍한 상태, 무기력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많다. 일부 한동대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은 기숙사나 집에서 곧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옷을 갖춰 입고 생활하고 있다.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머리를 감을 때 눈조차 쉽게 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수 있도록 돕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균열이 간 건물을 보수하거나 잔해를 치우는 일을 도와줄 인력이 필요하다. 각계각층에서 지진피해 복구를 돕고 있지만 흥안교회처럼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이 많다. 포항지역 교회를 위한 구호팀 파견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행히 대학청년부와 NGO 더멋진세상이 한동대학교 및 포항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팀을 꾸리고 있다. 성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한동대학교와 포항 시민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교회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누군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포항 복음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박원권 교수(한동대 국제처장 겸 대외협력실장)는 “지진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포항 시민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한동대학교 김기찬 총학생회장은 “지금은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때”라며 “한동대학교 학생들과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지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후원문의: 054-260-1065

칼럼

지진을 경험한 한동대학교 학생들의 심리가 매우 불안하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땅이 흔들리고 울렁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와 같은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상담을 신청한 학생과 교직원이 100여 명이 넘는다.

한동대학교 상담센터에서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지진 당시 느꼈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을 자각하도록 돕고 있다. 두 손을 엑스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감싸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기법도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집단상담이 학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지진 트라우마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동질감과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금은 급성기 지진 트라우마에서는 조금 벗

어난 상태다. 이를 ‘아급성기’라고 한다. 지금 상담 목표는 외상 이후 성장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진이라는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설정하면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한동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하루 속히 지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다.

/ 류수정 연구원(한동대 상담센터)

전문가 기고 자연주의와 과학

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본질 모르고, 진리 고민 안하고,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

자연주의(自然主義)는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세계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근본원리가 자연(물질)에 있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과학이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 오직 기독교만이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 성태연 교수(고려대 신소재공학부)가 자연주의가 무엇이고, 어떤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성태연 교수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자연주의란 무엇인가? 자연주의는 환원적 물질주의, 과학주의 혹은 자연유물론이라고 불린다. 자연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이며 물질은 기본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원소들이 우주를 형성하는 본질

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이나 영혼같은 비물질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되었다는 자연주의의 주장은 생명 창조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설명할 때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자연주의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영원하고, 새로운 것은 발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라지지 않으며, 우주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은 영원토록 재변환의 과정을 거칠 뿐이라고 주장한다. 우주가 폐쇄된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실험에 의해 증명된 것이 아니라 가정(假定)일 뿐이다.

자연주의는 모든 것이 자연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자연법칙은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목적성이 없고, 단순히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칙이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듯 자연주의는 단순히 존재하는 원소들이 왜 자연법칙을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자연주의에 따르면 인간도 자연법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물질의 집합체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망, 감정, 생각, 도덕적 선택조차도 물리적 원인에 의해 생겨난 물리화학적 결과라는 것이다. 자연주의는 모든 인간 활동의 원인을 영혼이나 정신 같은 것이 아니라 뇌와 같은 신체기관에서 찾게 된다.

과학과 자연주의의 세계관

과학은 자연주의가 아니다. 자연주의자들은 물질적 상호작용을 배제한 모든 것들이 다 지식과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물질이 어떻게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판단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자연주의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비물질적인 것에 의지하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옛날



에 해결 불가능했던 많은 문제들이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해결된 것을 제시한다. 의학의 획기적인 발달, 곡물 수확량 향상, 교통, 통신 분야에서 눈부신 도약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과학의 업적을 과학적 자연주의의 업적으로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자연주의는 우리가 이성에만 의지한다면 과학기술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915년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0%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답변은 과학주의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들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종교가 퇴보하여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80년이 지난 1995년 재조사 결과는 과학주의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놀랍고 획기적인 과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가진 과학자들의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과학은 중립적 도구로 과학주의와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자연주의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1933년 과학자들이 발표한 ‘인본주의자 선언’은 자연주의 세계관의 근본 사상을 보여준다. 세계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인간과 자연은 동일하다고 말한다. 또한 현대 과학이 창조주를 대신해야 하며, 종교적 사상보다는 이성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언 마지막 부분에 특이한 내용이 있다.

“선한 삶을 향한 추구는 인류의 중심 과제이다. 인간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실현할 책임이 있는 존재이며, 지성과 의지를 사용하여 이

를 실현해야 한다.”

인본주의자 선언은 자연주의가 종교 체계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구원을 ‘선한 삶’과 ‘꿈꾸는 세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연주의는 단순히 물질(원소)의 집합체인 인간이 왜 선한 삶과 꿈꾸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자연주의의 한계와 문제점

과학과 이성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또한 모든 세계관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그뿐이다. 어떤 세계관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과학을 통해 이론 많은 업적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었다. 그렇기에 과학적 방법이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적 자연주의는 분명한 논리적 한계를 가진다. “물질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자연주의의 주장은 자연주의의 개념과 자연법칙에 근거해 주장할 수는 있지만 증명할 수 없다. 이 진술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믿음의 표현이다.

자연주의는 우주의 모든 것이 물질로 구성되며, 불변하는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 이는 신앙적 진술이지만 나름 논리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설명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자연주의는 원소들의 집합체가 어떻게 도덕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지, 원소들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왜 인간의 신경세포만이 존재와 삶의 목적을 궁극해 하는지, 인간이 물질로 구성되었다면 왜

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답변해야만 한다.

자연주의에는 문제점이 있다. 자연주의의 신념체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인격적인 법칙이 폐쇄적인 시스템 안에서 인격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하려고하기 때문이다. 자연주의자들의 신념은 결국 하나님 없는 기독교와 같다. 자연주의에서 말하는 윤리, 의미, 영광 등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은 없다.

자연주의는 물질의 집합체인 인간의 존엄성, 도덕적 가치, 선한 삶 등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만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세우고 지킬 수 있다는 역설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비인격적인 물질 세계에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주의에 매력을 느낀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을 이용해 우주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약속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연주의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과학주의는 신뢰할 만하지 않으며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천국이 있다고 살았는데 천국이 없다면 별로 손해 볼 것은 없는 삶이다. 그러나 천국이 없다고 살았는데 정말 천국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다. 천국이 없다고 살기에는 너무나 큰 도박이다.”

과학적, 수학적 사고로 생각해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다. 그렇다면 근본적 논리적 모순과 불확실성에도 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첫째, 과학자들이 현대과학의 놀라운 업적 속에서 과학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진리를 직면한다면 오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둘째, 진리에 대해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 등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정답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요 14:6)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셋째, 실체를 알았더라도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롬 1:28). 과학주의자들의 무신론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본 내용은 스티브 윌킨스 · 마크 샌포드의 《은밀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불만한 영화

“아이엠 호프맨!(I am Hopeman)”

임만호 선교사와 캄보디아 희망학교 아이들

선교지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큰 감동과 도전을 준다. 이번에 한 선교사의 아름다운 삶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최대의 빈민촌 언동마을에서 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임만호 선교사의 삶을 그린 ‘아이엠 호프맨’이 바로 그것이다.

캄보디아는 빈민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GDP가 1,389달러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임만호 선교사는 캄보디아 빈민촌 중에서도 빈민촌인 언동마을에 자리 잡았다.

임만호 선교사가 언동마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장난감도, 책도, 학교도 없었다. 공부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사정은 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쓰레기를 뒤져 먹을 것을 찾으면서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며 살고 있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다. 그것이 꼭 13년 전이다.

임만호 선교사는 언동마을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은 질 좋은 장난감이 아니다. 맛있고 따뜻한 식사도 아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였다. 임 선교사는 언동마을에 학교를 세우겠다고 다짐하고 그 일에 집중했다.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다. 나무 아래서 아이들 20여 명에게 간단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학교가 바로 언동마을 최초의 쉼터이자 학교인 ‘희망학교’다. 13년이 지난 지금 언동마을 아이들이 아침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다.

“아이엠 호프맨!”

꿈 키워가는 아이들을 위하여

희망학교 학생들은 등하굣길에 한 자리에 모여 손을 높이 들고 “아이엠 호프맨”이라고 외친다. 13년 전만 해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희망’이라고 고백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학교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희망학교 1회 졸업생을 배출했을 때 졸업생들이나 임만호 선교사는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다. 졸업생 전원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일을 계기로 희망학교는 중·고등과정까지 개설했다. 사역이 한창이던 2009년 임만호 선교사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파킨슨병이 발병한 것이다. 왼쪽 뇌가 점차 기능을 잃어갔지만 임 선교사는 언동마을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파킨슨병 치료보다 사역에 집중했다.

2012년에는 비극적인 일을 경험했다. 임만호 선교사의 딸 아들 요한이를 뺑소니 교통사고로 잃었다. 임만호 선교사는 날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한 거리를 지나서 희망학교로 향하고 있다. 희망학교에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길을 다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쁜 일도 많았다. 2016년에는 제1회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 졸업생 17명 중에서 12명이 대학교에 진학했다.

다큐멘터리 ‘아이엠 호프맨’은 임만호 선교사의 사역을



답답하게 담아내고 있다. ‘SBS 스페셜’, ‘EBS 다큐프라임’ 등 유명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나현태 감독이 8년 동안 캄보디아를 오가며 영상을 만들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멀게만 느껴진다면 다큐 영화 ‘아이엠 호프맨’을 볼 것을 추천한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빈민촌에서 희망을 외치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삶과 신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두란노 신간

예수님이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팀 켈러의 예수, 예수〉
팀 켈러 저 | 두란노 | 12,000원

‘21세기 C. 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의 신간 〈팀 켈러의 예수, 예수〉가 나왔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팀 켈러는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다. 필자는 특히 나날이 흐려지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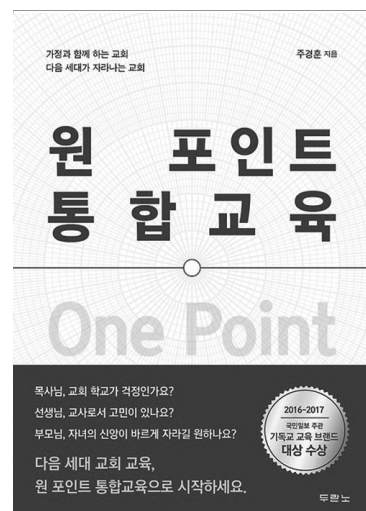
이 책에서 팀 켈러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또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팀 켈러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 스스로 분발해서는 행복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예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당부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 자기 삶을 통제하는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

키지 않더라도 아주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밑바닥까지 내려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가정이 주도하는 교육



〈원 포인트 통합교육〉
주경훈 저 | 두란노 | 12,000원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런데 교육의 중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주경훈 목사의 〈원 포인트 통합교육〉이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준다.

책에서 주경훈 목사는 육하원칙을 대입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왜(Why), 누가(Who), 어디서(Where), 언제(When), 어떻게(How), 무엇(What) 등 육하원칙으로 교육을 설명하고 있다. 그 교육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른 교육을 강조한다.

바로 그 교육방법을 ‘가정이 주도하는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은 부모들이 가르쳐야 할 내용보다도 부모로서의 됴됨이를 먼저 언급한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때 교육이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다음세대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교회 리더십과 교사, 부모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전 세계 변화시키는 리더 되길”

CCF 전도집회, 611명 참석, 310명 긍정적

CCF(Christian CEO Forum)가 지난 3일 개최한 맞춤형전도집회 ‘The 멋진 당신’에 역대 최대 인원인 611명이 참석해 310명이 긍정적 반응(CCF 참가희망 166명, CEO스쿨 참가희망 116명, 교회 참석 고려 28명)을 보였다. 서울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CCF 맞춤형전도집회 ‘The 멋진 당신’에는 특별히 스타트업(신생벤처)한 청년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맞춤형전도집회 The 멋진 당신은 브라스통의 특순, 식사, 가수 백지영의 축하공연, 배상민 교수의 말씀, 이재훈 목사 결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배상민 교수(카이스트, 디자이너)는 청년 기업인들에게 “지난 14년 동안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를 휩쓸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했다”면서 “주신 축복과 소명을 깨달아 사회, 나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만드신 이



‘The 멋진 당신’에서 배상민 교수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며 “더 멋진 당신으로 변화돼 어두운 이 시대 하나님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양재식 형제는 “기업가의 목적은 이윤추구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윤추구보다 소명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남식 장로(CCF회장)는 “청년 기업가들에게 멘토링의 기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고, 운영 각 장로는 “크리스천 기업가로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겠다고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었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창립 7주년 감사예배

이재훈 담임목사, 김광동 장로 등 80여 명 참석

NGO 더멋진세상이 창립 7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12월 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열린 NGO 더멋진세상 창립 7주년 감사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CEO), 정경화 바이올리스트, 후원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감사예배는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 특순,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이재훈 담임목사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면 NGO

더멋진세상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창립 7년 만에 유엔경제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하며 국제적 NGO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21개국 27개 마을에서 ‘더멋진마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는 더 많은 이웃들을 찾아가 섬길 예정이다.

김광동 장로는 “앞으로는 중앙아시아, 동남미의 이웃들도 찾아가 섬길 것”이라며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후원, 기도를 부탁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کمپ션 감사예배 ‘그의 열매’

지난 주일(12월 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2부 예배와 양재 온누리교회 3부 예배를 한국کمپ션 감사예배 ‘그의 열매’로 드렸다.

کمپ션은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 25개국 어린이들과 1대 1로 결연해서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전인적(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어린이양육기구다. 현재 180만 명 이상의 후원자들이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کمپ션 감사예배 ‘그의 열매’는 한국کمپ션을 통해 1대1 결연 후원을 하고 있는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다. 서정인 한국کمپ션대표가 감사인사를 했고, 리치몬드 완데라 목사(우간다 کمپ션 졸업생)가 ‘위대한 증인’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서정인 대표는 “کمپ션이 전 세계 어린이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후원에 앞장서준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리치몬드 목사는 “후원자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처럼 앞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کمپ션 사역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현주 기자

아트비전 아트소품전

온누리교회 미술인 선교회 아트비전이 1월 8일까지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카페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주제로 아트소품전을 실시한다.

이번 아트소품전에는 23명의 아트비전 소속작가들이 참여했다. 염서, 시계 등이 전시 및 판매된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사회선교본부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010-4876-2354

대학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 시작

40개 지역, 75개 단체 및 교회 방문

대학청년부가 어제(9일)부터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시작했다. 12월 25일까지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11개 공동체 청년 1,810여 명이 40개 지역, 75개 단체와 교회를 방문해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다.

이번 크리스마스 블레싱에는 지진 피해를 겪은 경상북도 포항 지역

교회 14곳도 방문한다(관련기사 7면).

대학청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지역 단체 및 미자립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웃들을 위로하는 행사이다.

/ 이소정 기자

어린이 일일과학캠프

온누리 창조과학선교팀에서 창조신비를 탐색하는 ‘어린이 일일과학캠프’를 개최한다. 12월 16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 본관 제 1의학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초등학교 6학년이 대상이다. 어린이 일일과학캠프에서는 초파리 돌연변이 해부 실습, 소의 눈 해부 실습,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의료처치 실습이 이루어진다. 눈의 신비를 경험하고, 응급의료처치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참가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3만원.

문의: 010-2580-0804

엔젤트리, 오늘이 마지막

지금까지 1,687개 사연 후원자와 연결

2017 엔젤트리가 오늘 마무리된다. 엔젤트리에 대한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지금까지 1,687개 사연이 후원자와 연결됐다. 서빙고, 양재, 남양주, 인천, 양지 온누리교회는 매주 후원율 100%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도 엔젤트리 후원을 망설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엔젤트리에 참여하고 싶은 성

도는 사연게시판에 게재된 사연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양식에 맞춰 작성한 다음 엔젤함에 넣고, 천사카드를 엔젤트리에 걸면 된다.

사회선교부에서 사연 주인공들의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주면 3~5만 원 가량의 선물을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358

/ 김영선 기자

Acts29비전빌리지, 선교사 훈련 일정 발표

1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맞춤형훈련 실시

Acts29비전빌리지가 2018년 선교사 훈련 일정을 발표했다. 단기, 장기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성도나 공동체에서 선교사케어를 담당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훈련일정을 확인하고 참석 및 전달해야 한다.

단기선교사들을 위한 훈련 TP는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두 차례 실시된다. 장기선교사들을 위한 훈련 OSOM은 2월 19일부터 6월 9일까

지 진행된다. 안식년을 맞이한 선교사를 위한 훈련 H2K는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두 번째 안식년을 맞이한 선교사들의 훈련을 돕는 H2K는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

1월 8일에 시작되는 TP는 12월 11일까지, 2월 19일 시작되는 OSOM은 1월 2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문의: 031-331-8182

/ 김영선 기자

강서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를 마치고

박진영 다락방장
(강서공동체)

올해 1월,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할 때였다. 공동체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축제 총괄 팀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때 나의 반응은 한마디로 “제가요?”

였다. 나는 교회에서 맞춤형전도집회 관련 동영상을 본 것이 전부였고, 관련 경험이 전혀 없었다. 초임 다락방장에게는 너무 거대한 프로젝트로 보였다. 일단 알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다.

전화를 받은 다음날 새벽기도회 본문이 성전 재건축을 하는 과정(학 2:1~7)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다. 문득 몽골과 네팔 아웃리치 팀장을 맡았을 때 모세의 성막 짓는 과정과 성전 재건축에 관한 말씀으로 아웃리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기억났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하라”(학 2:4)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아, 내가 앞서 일할 테니 너는 나와 함께 손잡고 가보자꾸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전도집회의 틀을 만들 때 모세의 장인 이드



강서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에서 초청자와 전도대상자가 즐겁게 게임을 하고있다.

로가 생각났다.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느라 고전하는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는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나도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었다. 큰 프로젝트인 전도집회를 위해서는 다락방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은사를 가진 성도들에게 함께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 결과 각 다락방별로 사진·영상팀, 식사·간식팀, 안내팀, 주차팀, 데코팀, 중보기도팀, 무대·조명팀, 공연팀, 회계팀, 아이돌봄팀이 꾸려졌다. 자신의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공동체 식구들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영원히 기억될 집회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전도집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메시지가 일관성 있게 전달되었다. 추운 날씨에도 밝은 모습으로 섬기는 주치안내팀과 공동체 식구들의 사랑 가득하고 정성스런 섬김이 참석한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녹였다. 초청자와 전도대상자가 테이블에 함께 앉도록 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도 했다. 무엇보다 전도대상자들에게 교회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한 곳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를 위하여 공동체 식구들은 행사 전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온누리 기독문화전시관에

전면 배너, 조명, 무대, 벽면 데코 등을 설치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슴 벅차게 느낄 수 있었다.

전도집회의 열매도 풍성했다. 전도대상자 33명 중에서 14명(42.4%)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9명(27.2%)은 교회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전도대상자 6명은 세례를 신청했다.

전도집회를 마치고 전도대상자들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전도대상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따뜻한 섬김과 환대에 감사했고, 좋은 프로그램과 진행에 만족했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귀한 시간이라고도 했다. 한 참석자는 행사장에 들어서면 순간 분위기에 압도되어 눈물이 왈칵 나왔다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그 수고가 느껴졌다고 하셨다. 또 다른 자매님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이렇게 귀한 전도집회에 모셔서 결신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소망했다.

강서공동체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수고로 아름다운 연합과 성숙을 이루어낸 은혜로운 집회였다. 영원히 가슴 속에 기억될 것 같다. 2017년 한 해 동안 Acts29 비전을 함께 써 내려 간 강서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선교사가 보낸 편지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유니게 선교사(동아시아 B국)

졸업과 취업으로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떠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리더 역할을 해왔었다. 다음 예배자가 세워져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모임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저녁예배에서는 감정카드를 활용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청년들의 생각이나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일과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그들이 QT를 통해서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C지체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다. 말씀은 들어도 욕심과 걱정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주고 사용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있다. I지체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이 친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T, I, M 세 지체들은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있다. 취업난에도 좋은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 R

형제는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파트 관리직인데 사람들의 인격모독적인 언행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국인 유학생인 같은 반 친구 K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 아직 K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반주가 가능해서 예배를 섬기고 있다. 그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B형제는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다. 가려움과 쓰라림으로 고통 받는 친구에게 피부의 세포들이 재생되고 면역력이 좋아져 나올 수 있기를 기도를 부탁한다.

1학년 H족 친구들은 학교수업이 바뀌었다.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다. H족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되어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언어 훈련에 지혜가 부어져 언어를 잘 익힐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 시간을 깊이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용납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간구한다.

하우미션스쿨 수료 간증문



/ 박수웅 성도(김포공동체)

총체적 선교와 전인적 건강 ‘CHE’

나는 공동체 선교사역자로 매년 아웃리치에 참가하면서 많은 은혜와 선교적 성과를 목격해 왔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무엇인지 모를 아쉬움과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공동체 집사님의 소개로 ‘CHE(Community Health Education/Evangelism)’에 대해 알게 되었다. CHE에 대해 알아갈수록 이것야말로 내 갈급함의 채움이자 교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온누리교회 CHE 모임에서는 CHE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하우미션스쿨’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같아 감사한 마음으로 하우미션스쿨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1년 전쯤 나와 아내는 신앙적인 삶과 사역이 정제되어 있음을 느끼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당시 아내는 JDS 간사로 섬기면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싶은 열망이 컸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구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열망이 오해 아닌 오해로 받아들여지면서 아내는 큰 갈등 속에 있었다. 나는 아내에

게도 CHE가 필요함을 직감하고 함께 하우미션스쿨에 참여하기로 했다. CHE 원리에 대해 배우면서 사역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관점의 전환을 경험했다. 지금 아내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다. CHE에서 항상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원리를 일터에 적용해서 어르신 중심의 요양보호사로서 삶을 통해 온전한 복음을 구현하려 애쓰며 일하고 있다.

선교지와 현지인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선교지와 현지인은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및 직장 동료일 수 있고, 내 가정과 내 자녀일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와 이주민일 수 있다. 순교 순원일 수도 있다.

모든 공동체가 복음을 통해 건강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축진자가 될 것이다. CHE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하우미션스쿨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호와 개발, 주인의식, 필요와 자원, 적정기술 등의 과목을 통해 CHE 원리를 배우고, 총체적 선교와 전인적 건강에 대해 눈을 뜨게 해 준 하우미션스쿨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이주민들을 축복하는 콘서트



임광순 장로
(찬양공동체)

온누리교회 찬양사역은 예배본부의 사역이고, 선교사역은 2000선교본부의 사역이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찬양사역과 선교사역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찬양사역팀은 찬양을 통해 농어촌선교와 해외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모든 부서가 선교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온누리교회는 경배와 찬양으로 한국 교회 찬양사역에 크게 기여했다. 러브소나타와 같은 문화사역을 통한 선교도 이루어가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또 하나의 장점은 교파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사실이다. 온누리교회 이름을 나 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만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러한 동력이 나로 하여금 경기북부 지역에서 찬양사역을 통해 이주민교회를 섬기며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어가도록 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찬양사역은 2014년 주향찬양사역팀 아웃리치가 발단이였다. 처음 주향찬양사역팀은 부활절 칸타타로 음악회를 진행했다. 선교사님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만 이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였다. 2015년 온누리위십과 이어팀의 빠르고 생동감 있는 음악은 그들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게 했다. 작년에는 온누리교회 찬양팀이 따로 없어서 혼합팀(온누리장로합창단, 예율립, 이브투메리)을 구성하여 이주민 찬양팀과 함께 음악회를 개최했다.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주민찬양팀 실력이 향상됐을 뿐 아니라 이주민교회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다. 그

여세를 몰아 지난달 26일 의정부제일교회에서 개최한 이주민 음악회에서는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시도했다. 이주민들과 한국 교회 찬양팀이 함께 찬양했다.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위축되어 있던 이주민교회들이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주민은 전통복장을 입고 찬양과 춤을 선보이면서 음악회 관객이 아닌 주인공으로 참여했다. 말 그대로 모든 민족들의 축제였다.

이주민 음악회 명칭은 ‘Blessing Migrants Concert’다. 이주민들을 축복하는 콘서트라는 의미이다. 이 음악회는 참여인원도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5개 교회 200명, 2015년 9개 교회 350명, 2016년 20개 교회 500명, 2017년 21개 교회 620명이 참가했다. 이 수치는 이주민선교의 발전 가능성과 이주민교회의 연합을 말해 준다. 한 예로 작년에는 이주민교회연합 ‘열방선교네트워크’를 창단했다. 열방선교네트워크는 이주민 선교포럼, 부부학교, 아버지학교, 전도집회, 아웃리치, 1다락방1사역 등을 통해 이주민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찬양사역의 이주민선교음악회는 내년부터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려 한다. 그동안 음악회는 외형상 주최와 주관이 열방선교네트워크였지만 실제 연출과 지원은 온누리교회 2000선교와 찬양사역팀이 감당해왔다. 이제 내년부터는 음악회 연출과 기획을 지역교회가 담당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주민음악회를 통해 더 많은 지역교회가 이주민선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역교회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이다.

음악회를 계기로 지난 4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주민교회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지금은 경기북부 10개 도시, 46개 이주민교회(12개 지역교회 포함)와 함께 이주민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나는 이주민선교음악회 ‘Blessing Migrants Concert’가 이주민선교의 새 길을 열어 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기대한다.



조혜선 권사
(강남C공동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 이웃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처방전이 되곤 한다. 성경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처방전이

다. 성경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과 주고받는 다양한 말들이 아픈 삶의 처방전이 되기도 한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더 많은 처방전을 주고받는다. 순모임을 하면서 이웃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자는 처방전을 지어주기 때문이다.

사람은 목적을 잃을 때 약해진다. 살아갈 희망을 잃는 순간 맥이 빠진다. 그 약해진 마음 안으로 불안과 우울이 파고든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걱정되고 마음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우울증상으로 힘겨워 하는 사람에게 좋은 처방전은 우울증을 해소하고 마음을 밖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인류 최초이자 최후의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이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을 표현하는 처방전을 준다. 건강이 좋을 때는 마주하지 못했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질문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라고 무조건 격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처방은 위로나 격려의 말이 아닐 수도 있다. 격려의 말 몇

마디가 당장에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30여 년 동안 수술실 간호사로 섬기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을 어떻게 건네야 할지 잘 몰랐던 것 같다. 최근에 막 간호사가 된 딸에게 이렇게 물었다.

“암환자들을 대할 때 조심스럽거나 어렵지 않니?”

“아니야 엄마. 다 똑같아. 그분들도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을 바라지 않으셔.”

나는 퇴직을 하고서야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내 나이 60살이 넘어서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다. 30여 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퇴직하고 이제서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웃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리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 나의 살아온 삶 가운데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삶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 쓴 글은 <위대한 참견>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쓴 것이다. <위대한 참견>은 일본의 병리학 의사인 ‘히노오끼오’가 쓴 책으로 우리의 대화가 때로는 참견 같지만 좋은 처방전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병원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쓰인 책이지만 일상생활에 적용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이웃들에게 좋은 처방전을 내놓는 이웃들이 되기를 바란다.

신앙에세이

6가지 질문



김정숙 목사
(서울삼성병원 원목)

서울삼성병원의 이정언 교수님이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다. 그러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진화와 창조는 무엇이 다른가’, ‘인간이 무병장수 한다면 신의 존재는 부인되는 것인가’, ‘신은 인간에게 왜 고통, 불행,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다. 인류가 생긴 이래 많은 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답이 없을 만큼 어려운 질문이었다. 나는 서울삼성병원 원목으로 섬긴 경험과 기독교적

관점을 통해 이 질문에 접근해 봤다.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인간은 신을 증명할 수 없지만 신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은 분명 창조한 자연과 성경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 신의 존재는 논리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진다.

‘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 질문은 ‘진화와 창조는 무엇이 다른가’로 이어진다. 진화와 창조는 다르다. 환경이나 시간에 따라 적응 과정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유인원이 인간이 되지는 않는다. 종에서 종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진화는 없다. 같은 파충류라 할지라도 개구리가 뱀이 되거나 물고기가 공룡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인간이 무병장수 한다면 신의 존재는 부인되는 것인가’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될 수는 있다. 하지만 질적인 장수가 아닌 생명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회장도 85세에는 걷다가 90세에는 휠체어를 탔다. 94세에는 침상에 누워서 생활 했고, 97세에는 듣는 것만 할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를 넘기기 힘들다. 의학이 발전하면 15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의사들도 있다. 허나 성경에서 100세, 150세는 장수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은 인간에게 왜 고통, 불행, 죽음을 주었는가’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는 내세가 있다. 죽음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 하나다.

무엇이 고통이고 불행일까. 삶 속에서 행복과 불행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사회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음에도 행복해하는 이들이 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순교자들도 있다.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이 있다면 평안과 행복도 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을 갖춘 삶이 아니라 질병과 고통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이겨나가는 것이다.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다음과 같다. 신은 악인을 만들지 않았다. 인간은 창조될 때 귀중한 인격으로 창조되었으나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지었다. 세상의 모든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악은 이것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자유지’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뜻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선하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이 말씀 속에 이중적 신분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다윗의 뒤를 잇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라 되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이중적 신분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사 9:6~7).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아이, 한 아들의 정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한 인격 안에서 혼란 없이 온전히 좋아하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신비 가운데 가장 큰 신비입니다. 아이작 암브로스라는 청교도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초 이래로 많은 신비로운 기적들이 있었지만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육신이 되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일부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신비한 일이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의 신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시고, 화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이셨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의 행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

은 하나님의 행위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종이 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을 “나의 택한 종, 의로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시고, 연결이 되시고, 화목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양쪽 모두에게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이중적 신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4백 년 동안이나 이 신비를 알기 위해 토론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수많은 시간을 탐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신비는 파헤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비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초대교회는 계속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예수님을 실제 목격했던 사람들이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증언들이 전부 보관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자료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4세기 동안 살펴보고 결론 내린 것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겨보려고 했는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요 축복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문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네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16절).

‘영원히’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사용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분이 영원한 약속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효력이 있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고, 세상이

끝난 후에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을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 어떤 사상이 영원에 대한 분명한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원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기에 하나님과 영원을 믿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사 55:3).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지는 왕국이나 다른 왕들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 왕국들은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종말로 끝나고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영원한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준비하셨고,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까닭은 자신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모든 대적을 꺾는 승리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세상 앞에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복된 성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해외비전교회 소식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베트남 호치민에 베트남 온누리교회가 세워진지 올해로 6년이 되었다. 지난 6년 동안 베트남 온누리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예배, 선교, 성령공동체로 든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지난 6년 동안 베트남 온누리교회가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꿈꾸며 이룬 일은 베트남 현지 교회와 연합해서 현지인들이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과 현지 교회들을 통해 베트남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다.

베트남 온누리교회에 주신 선교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선교사를 통한 복음 전파’, ‘베트남 공인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 ‘문화·사회 사역을 통한 복음 전파’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축을 기본으로 베트남 온누리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인 사명을 이뤄가는 교회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베트남의 선교 현실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 베트남에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교단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C&MA(복음성회)인데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다. C&MA의 교회 수는 다낭을 기준으로 남쪽에 4천여 개(기독교 포함), 북쪽에는 약 1천여 개 정도다. C&MA 전체 기독교인 수는 120만 정도이고, 다른 공인 교단의 교회와 가정교회를 합치면 6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인구는 9천6백만 명 정도이고 54개 종족이 있다. 간족이 8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4%는 소수 종족이다. 베트남의 복음화율은 2% 정도인데 복음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수 민족을 제외한 간족의 복음화율은 1% 미만으로 아주 낮다. C&MA교단 소속 신학대학이 1개 있는데 교육기간 5년이다. 목회자 수를 50명으로 제한해서 교회 성장과 확장을 막고 있다. 이러한 제한 때

베트남 온누리교회와 선교

문에 베트남에는 목회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모든 것이 베트남 정부의 관리와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교회가 자체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많은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베트남 복음화와 베트남 현지 교회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회성 이벤트 사역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 따라서 이곳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베트남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베트남 온누리교회는 시작부터 선교 방향을 베트남 현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C&MA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정했다. 베트남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복음화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특히 베트남 차세대에 많

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다.

C&MA교단 같은 공인된 베트남 교회를 통해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베트남 종교법 때문이다. 1992년 발표된 종교법은 ‘신앙의 예배 장소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공인된 베트남 교회 안에서는(사전 신고 필요) 모든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공인된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하게 선교하는 방법이다. 해외 교회나 선교사가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보다 베트남 교회를 정부기관이나 지역주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효과적인 선교이다.



이정국 집사
(베트남 온누리교회)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차세대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본관 5층 미션다락방

안산M센터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Peace 302 / 다문화 애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 열방예배 주일 9:00 301 / 네팔

어 주일 9:00 302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운동(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9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OEM한국어교실 봉사자(교사)모집

날짜: 매주 토요일(계절방학 있음)

서류: 간단한 자기소개와 신앙간증문

자격: 온누리등록교인, 일대일 수료자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주일 7부 예배 콰이어 모집

연습: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자격: 온누리교회 등록 및 세례교인

문의: 박근범 전도사(010-4939-2627)

CMN 드림팀 해외 아웃리치 모집

일시: 18년 2월 14일~19일

장소: 인도네시아 팔렘방(회비 135만원)

모집: 의사, 약사, 간호사, 치위생사, 의료봉

사 관심자 등

문의: 010-4230-1474, 010-2586-5447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단원 모집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을

준비: 찬송가 1곡(자유곡)

문의: 신용환 총무(010-8695-8341)

합창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ommckr) 참조바랍니다

CMN 라파뎀 치과외사 모집

일시: 둘째 주일 오후 4시~6시

내용: 서빙고 M미션 외국인 진료

문의: 심형식 팀장(010-3227-9915)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바다 건너 복음의 빛을 발하다’

일본 도쿄의 작은 도시 나리타에 고향교회 패밀리가 간다!
28년 전 김사무엘 선교사와 함께 개척한 나리타복음교회.
재일교포 3세 목사님과 한국인 사모님의 사랑과 섬김의 스토리부터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현장까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일본 나리타복음교회 편

12월 11일, 18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방송



CGNTV 2018년 말씀달력 판매

12월 17일 주일 서빙고, 양재 캠퍼스에서 말씀달력을 판매합니다.
성탄과 연말연시에 말씀달력을 선물해주세요. 판매수익금은 선교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문의: 02-796-2243

